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안전의식 실천과 응급처치 지식에 대한 실태 조사(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이효철, 장용수¹, 최은영²

광양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¹광양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²광양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Actual Survey on the Safety Conscious Practice and First Aid Knowledge of Health Department and Non-Health Department Female College Students (Oriented to Gwangju area)

Hyo-Cheol Lee, EMT; Yong-Su Jang, OT¹; Eun-Yung Choi, PT²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yang Health College; ¹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Gwangyang Health College; ²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Gwangyang Health College

Purpose : This study is to supply basal data need to development of First-Aid education program for female college students of non-health department that we surveyed safety awareness practice, First-Aid knowledge, educational requirement and necessity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of health and non-health department.

Methods : This date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1th in 2012 until October 5th by 5 person selected of which explain to purpose and method of the writing. We distributed the subject questionnaire of total 410 and analyzed questionnaire 385 only.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the health group was higher than non-health group in conductive score of safety awareness and score of First-Aid knowledge in female students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Economical state, Educational state of the Safety awareness Practice score and First-Aid knowledge score ab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of health department. Third, there wasn't significant difference in most of all item of the Safety awareness Practice score and First-Aid knowledge score ab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of non-health department.

Conclusion : Finally, We found that the female college students of health department lower than the female college students of non-health department in First-Aid knowledge level and surveyed that they felt the needs of First-Aid education. Therefore, there are able to need the opening of a course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of safety awareness and First-Aid knowledge or to needs construction of educational system in continuously.

Key words : Health department, Non-health department, Safety conscious practice, first aid knowledge, Female college student

논문접수일 : 2011년 11월 5일

수정접수일 : 2011년 12월 10일

게재승인일 : 2011년 12월 12일

교신저자 : 이효철, emt0802@naver.com

I. 서론

현대 과학기술은 사회질서의 급변화와 함께 인간 소외, 환경오염, 생활공간의 협소, 운동 부족등과 같은 여러 사회·병리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¹ 이러한 생활양상의 변화로 심근경색증, 뇌 혈관계 질환 등의 만성 성인병 증가와 더불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 감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² 우리는 그 동안 성장과 능률의 외

형적인 것만 강조한 나머지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부족하다.³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이며, 교육을 위한 조건이 되며, 전인육성이 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안전한 상황에서 안심하고 자유롭게 학습하며, 교사는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4,5} 모든 사고는 한 순간의 부주의와 과실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피해를 당한 학생당사자는 일정기간 동안 학습권을 침해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⁶ 일반적으로 안전과 사고는 정반대의 개념상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안전은 위험하지 않거나 그러한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사고를 말한다.⁷ 위험이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되는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뜻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여 대비하고 예방함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최대한 줄이거나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최대한 작게 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한다.⁸ 갑자기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그 상황에 적절한 응급처치만 이루어 진다면 사망률과 이차로 발생 할 수 있는 장애 정도는 낮추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최초 반응자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일관된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며, 교육 후 교육을 평가 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⁹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연구실뿐만 아니라 실험실, 강의실, 기숙사, 교내 도로 등 대학시설 전체에서 다양한 인적, 물적 유발요인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대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사유로 대학생들에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며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안전 교육과 안전 관리는 필수적이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학생들에게 생활방법을 교육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내외에서 갑자기 발생 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이론교육과 술기교육을 숙달시켜야 한다.^{11,12} 그러나, 현재 국내의 경우 구급차 운전자, 학교 보건교사, 경찰 공무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인명구조요원, 관광사업종사자, 항공조종사 또는 객실 승무원, 철도종사자, 선원 중 의료·구조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만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¹³ 대학생들에 대한 의무적인 응급처치 교육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여대생들의 경우 결혼과 더불어 가정에서 아이의 양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사고에 있어 최초 반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의식과 응급처치 지식에 대한 교육이 더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을

전공하는 여대생들의 안전의식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비보건계열 여대생들 보다 안전의식 실천이나 지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의 여대생의 응급처치 지식이나 실천 점수를 비교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수준과 교육요구도 및 필요도를 조사하여, 학교나 다양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수행과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대생들의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G광역시 소재 대학 중 보건 계열과 비보건 계열 여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 까지 선정된 설문요원 5명이 학과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의 취지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총 41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중 내용이 불충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후 385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 설문 조사

설문지는 Hong¹⁴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기초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7문항, 안전의식에 관한 항목 3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응급처치 지식에 관한 50문항, 교육의 필요성과 분야에 관한 5항으로 총 9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사용된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 필요도는 빈도와 백분율, 안전의식 실천점수와 응급처치 지식점수는 t-test, 일반적인 특성과 안전의식 실천점수 및 응급처치 지식점수는 ANOVA 및 Scheffe 사후검정, 교육 요구도는 다중 응답분석을 실시 하였다.

III. 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대상자들의 형제·자매수는 보건계열에서 2명 33.7%, 비보건계열 1명 45.5%로 다른 형제·자매수 보다 많았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모두 고등학교 졸업으로 보건계열 66.9%, 비보건계열 64.3%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보건계열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59.6%, 비보건계열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50.2%로 보건계열 학생들의 아버지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서는 모두 전문 기술직에서 보건계열 27.5%, 비보건계열 33.8%로 다른 직업군 보다 많았다. 종교는 보건과 비보건계열 학생 모두 무교가 46.1%와 48.8%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상태에서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 모두 중위권으로 82.6%와 89.9%로 가장 높았다. 주거 형태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모두 50.6%와 58.0%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변수	변수	보건계열 n=178(%)	비보건계열 n=207(%)
형제·자매수		없다	12(6.7)	12(5.8)
	1명		53(29.8)	94(45.4)
	2명		60(33.7)	71(34.3)
	3명 이상		53(29.8)	30(14.5)
어머니 교육 정도		초등학교 졸업	5(2.8)	3(1.4)
		중학교 졸업	21(11.8)	12(5.8)
		고등학교 졸업	119(66.9)	133(64.3)
		대학교 졸업 이상	33(18.5)	59(28.5)
아버지 교육 정도		초등학교 졸업	4(2.2)	3(1.4)
		중학교 졸업	16(9.0)	9(4.3)
		고등학교 졸업	106(59.6)	91(44.0)
		대학교 졸업 이상	52(29.2)	104(50.2)
일반적 인 특 성	보호자 직업	농, 축, 임업	16(9.0)	18(8.7)
		생산직	19(10.7)	19(9.2)
		전문 기술직	49(27.5)	70(33.8)
		판매서비스직	26(14.6)	26(12.6)
		행정사무직	26(14.6)	22(10.6)
		교원	2(1.1)	5(2.4)
		단순노무직	2(1.1)	5(2.4)
		군경	0(0)	4(1.9)
		기타(무직, 은퇴, 주부)	38(21.3)	38(18.4)
		종교		무교
	불교		24(13.5)	35(16.9)
	기독교		52(29.2)	55(26.6)
	천주교		20(11.2)	16(7.7)
경제상태		상	11(6.2)	4(1.9)
		중	147(82.6)	186(89.9)
		하	20(11.2)	17(8.2)

주거형태	일반주택	54(30.3)	61(29.5)
	상가주택	9(5.1)	9(4.3)
	다가구주택	25(14.0)	17(8.2)
	아파트	90(50.6)	120(58.0)

2.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안전의식 실천점수와 응급처치 지식점수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안전의식 실천점수와 응급처치 지식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전체적인 안전의식 실천점수는 보건계열 96.33점, 비보건계열 97.72점으로 보건계열의 안전의식 실천점수가 높았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31$). 안전의식 실천점수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가정 및 학교 영역에서 안전실천 점수가 보건계열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40$). 그 외 교통안전 실천점수($p=0.247$)와 야외활동 안전실천점수($p=0.223$)에서는 비보건계열의 평균점수가 높았지만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건계열의 응급처치 지식점수는 57.39점, 비보건계열의 응급처치 지식점수는 52.78점으로 보건계열의 응급처치 지식점수가 높았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표 2.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안전의식 실천점수와 응급처치 지식점수

특성	구분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F (p)
		M ± SD	M ± SD	
안전 의식 실천	교통안전 실천점수	23.02±3.69	23.46±3.83	0.008(0.247)
	야외활동 안전실천점수	12.02±2.38	12.30±2.16	1.376(0.223)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안전실천점수	61.29±14.14	61.96±13.82	0.032(0.640)
	전체 안전의식 실천점수	96.33±17.28	97.72±17.42	0.165(0.431)
	응급처치 지식점수	57.39±13.69	52.78±13.32	0.454(0.001)

3. 보건계열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실천점수 및 응급처치 지식점수

보건계열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실천점수 및 응급처치 지식점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실천점수에서는 경제상태 ($p=0.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가정의 경제상태가 상위권이 중위권, 하위권보다 높았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점수에서는 아버지 교육 정도($p=0.02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

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중학교 졸업 수준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보건계열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실천점수 및 응급처치 지식점수

변수	변수	안전의식 실천점수		응급처치 지식점수	
		M±SD	F(p)/Scheffe	M±SD	F(p)/Scheffe
형제 자매수	없다	92.42±16.47		60.83±15.59	
	1명	98.32±20.54	0.631	57.89±14.21	0.515
	2명	96.87±15.37	(0.596)	57.67±13.70	(0.673)
	3명 이상	94.60±16.06		55.81±12.89	
어머니 교육 정도	초등학교 졸업	99.20±18.48		50.40±8.64	
	중학교 졸업	97.95±20.61	1.788	57.14±16.10	0.980
	고등학교 졸업	94.37±16.35	(0.151)	56.92±13.49	(0.404)
	대학교 졸업 이상	101.91±17.55		60.30±13.29	
아버지 교육 정도	초등학교 졸업	87.50±10.84		54.00±19.04	3.231
	중학교 졸업	94.56±16.18	1.748	53.69±12.83	(0.024)
	고등학교 졸업	94.83±16.72	(0.159)	58.19±13.70	a(b)
	대학교 졸업 이상	100.60±18.61		65.00±12.22	
보호자 직업	농, 축, 임업	91.00±17.42		59.25±13.48	
	생산직	94.89±17.85		59.58±13.29	
	전문 기술직	97.31±19.19	0.926	56.00±12.64	
	판매서비스직	92.35±13.92	(0.488)	54.77±13.75	0.697
	행정사무직	100.77±18.65		59.85±14.23	(0.674)
	교원	95.50±9.19		52.00±22.62	
	단순노무직	111.50±44.54		46.00±5.65	
	기타(무직, 은퇴, 주부)	100.03±18.17		58.32±15.01	
종교	무교	93.63±18.09		59.12±14.80	
	불교	95.92±15.51	1.538	55.75±11.11	0.808
	기독교	99.13±17.36	(0.207)	56.04±13.09	(0.491)
	천주교	100.55±14.63		55.80±13.36	
경제상태	상	112.82±13.88	6.690	61.45±11.31	0.549
	중	95.92±17.25	(0.002)	57.02±13.77	(0.578)
	하	90.25±13.98	a)b,c	57.90±14.53	
주거형태	일반주택	95.26±18.58		59.52±14.09	
	상가주택	100.33±12.69	0.465	63.56±10.33	1.995
	다가구주택	99.08±15.28	(0.707)	58.80±15.43	(0.116)
	아파트	95.80±17.49		55.11±12.97	

*p<0.05, **p<0.01, ***p<0.001

4.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실천점수 및 응급처치 지식점수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실천점수 및 응급처치 지식점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실천점수는 보호자 직업에서 교원, 행정사무직, 전문 기술직 순으로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응급처치 지식점수에서는 교원, 행정사무직, 농·축·임업 순으로 높았지만, 이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상태에 따른 안전의식 실천점수와 지식점수는 하위 계층에 비해 중·상위 층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4.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실천점수 및 응급처치 지식점수

변수	변수	안전의식 실천점수		응급처치 지식점수	
		M±SD	F(p)/Scheffe	M±SD	F(p)/Scheffe
형제 자매수	없다	99.17±16.61		55.83±14.03	
	1명	96.78±17.25	0.671	51.68±12.91	0.671
	2명	97.27±17.05	(0.571)	54.06±13.93	(0.571)
	3명 이상	101.80±20.0		52.00±13.11	
어머니 교육 정도	초등학교 졸업	101.67±28.58		52.67±10.06	
	중학교 졸업	94.75±14.15	0.388	52.33±11.90	0.663
	고등학교 졸업	97.26±16.98	(0.762)	51.91±13.80	(0.575)
	대학교 졸업 이상	99.47±19.00		54.85±12.68	
아버지 교육 정도	초등학교 졸업	85.67±9.01		50.00±6.92	
	중학교 졸업	98.11±18.03	0.500	47.33±13.92	2.501
	고등학교 졸업	98.27±15.86	(0.683)	50.66±13.44	(0.061)
	대학교 졸업 이상	97.73±19.04		55.19±12.98	
보호자 직업	농, 축, 임업	94.89±12.70		55.67±10.56	
	생산직	96.00±14.20		54.95±11.82	
	전문 기술직	100.06±17.20		51.17±12.89	
	판매서비스직	96.54±18.04	1.597	48.77±16.86	1.375
	행정사무직	103.00±18.28	(0.128)	57.18±11.32	(0.209)
	교원	110.00±25.15		62.40±10.23	
	단순노무직	92.20±21.02		46.80±11.88	
	군경	79.00±14.49		51.00±13.51	
종교	기타(무직, 은퇴, 주부)	94.95±18.37		53.21±14.19	
	무교	96.48±17.32		51.84±13.87	
	불교	101.23±18.04	0.641	53.20±11.89	0.364
	기독교	97.96±18.24	(0.589)	54.11±13.11	(0.779)
경제상태	천주교	98.25±15.46		53.25±14.25	
	상	102.18±17.74		51.29±10.90	
	중	97.62±17.55	1.168	53.02±13.57	0.391
	하	88.00±12.54	(0.313)	48.00±12.32	(0.677)

주거형태	일반주택	98.31±15.26		52.36±13.32	
	상가주택	86.78±15.86	1,599	47.78±13.90	0.513
	다가구주택	94.29±23.73	(0.191)	52.94±9.59	(0.674)
	아파트	98.88±17.57		53.35±13.79	

5.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

대상자의 응급처치에 관련된 교육 필요도는 다음과 같다(표 5). 응급처치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 모두 80.9%와 78.7%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응급처치를 배운 교육기관은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 모두 학교에서 49.4%와 44.4%로 가장 많이 배우고 있었고, 매스미디어 38.2%와 36.7%, '배운적 없다' 11.2%와 17.9%로 나타났다. 응급처치 지식에 대한 정보출처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 모두 TV에서 61.8%와 72.0%로 가장 많이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고, 기타 30.3%와 24.2%로 나타났다. 응급처치 교육 필요시기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모두에서 초등학교가 38.8%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치원 27%와 24.2%, 중학교 22.5%와 21.7%, 고등학교 9.6%와 10.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교, 직장이나 사회는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응급처치 교육 필요도

내용	구분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n=178(%)	n=207(%)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도	예	144(80.9)	163(78.7)
	아니오	34(19.1)	44(21.3)
응급처치를 배운 교육기관	학교	88(49.4)	92 (44.4)
	매스미디어	68(38.2)	76(36.7)
	독학	2(1.1)	2(1.0)
응급처치 지식에 대한 정보출처	배운적 없다.	20(11.2)	37(17.9)
	TV	110(61.8)	149(72.0)
	신문	8(4.5)	0(0)
	잡지	6(3.4)	8(3.9)
	기타	54(30.3)	50(24.2)
교육 필요시기	유치원	48(27.0)	50(24.2)
	초등학교	69(38.8)	85(41.1)
	중학교	40(22.5)	45(21.7)
	고등학교	17(9.6)	21(10.1)
	대학교	3(1.7)	4(1.9)
	직장이나 사회	0(0)	1(0.5)
필요없다	1(0.6)	1(0.5)	

6.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교육 요구도

대상자의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교육 요구도는 다음과 같다(표 6). 응급처치교육 시 배우고 싶은 9개 항목 중 3개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보건계열 여자 대학생의 순위별로 보면,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이 2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흔히 발생하는 응급질환 19.5%, 골절·탈구·염좌 14.1%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보건계열 여자 대학생의 순위별로 보면, 흔히 발생하는 응급질환이 2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22.2%, 인체조직과 상처처치법 12.9%의 순이었다.

표 6.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교육 요구도

순위	내용	보건계열	내용	비보건계열
		n(%)		n(%)
1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100(20.8)	흔히 발생하는 응급질환	100(20.8)
2	흔히 발생하는 응급질환	94(19.5)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94(19.5)
3	골절, 탈구, 염좌	68(14.1)	인체조직과 상처처치법	68(14.1)
4	쇼크 처치법	56(11.6)	쇼크 처치법	56(11.6)
5	인체조직과 상처처치법	53(11.0)	골절, 탈구, 염좌	53(11.0)
6	드레싱 및 지혈법	48(10.0)	드레싱 및 지혈법	48(10.0)
7	열과 냉에 의한 손상 처치법	31(6.4)	열과 냉에 의한 손상 처치법	31(6.4)
8	응급환자 구조 및 운반법	20(4.2)	응급환자 구조 및 운반법	20(4.2)
9	중독 처치법	11(2.3)	중독 처치법	11(2.3)

IV. 고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의 여대생의 응급처치 지식과 실천 점수 및 교육 요구도와 필요도를 조사함으로써 학교나 다양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수행과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대생들의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교와 학생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사고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지만, 일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처치가 단순히 의료인의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응급처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나 그릇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일이 빈번하다.¹⁵ 응급처치 교육의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고 생활태도로 습관화하여야 한다.¹⁶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여대생의 안전의식 실천점수와 응급처치 지식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안전의식 실천점

수는 0~150점의 점수 범위에서 전체 평균이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 각각 96.33점, 97.72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64점으로 두 그룹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고, 이는 Kwon과 Chong¹¹의 연구에서 '비보건계열 여대생' 안전의식 실천 점수 72.20점 보다 낮았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교통안전 실천점수 100점 만점에 평균 76점, 야외활동 안전실천점수 평균 80점,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안전실천점수 평균 5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실천 정도가 가장 낮음으로 전반적인 안전의식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처치 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에 보건계열 여대생 57.39점, 비보건계열 여대생 52.78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는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계열 여대생이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많고, 관심도 높아 지식수준이 높았다.

보건계열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실천점수는 경제상태가 상위권인 경우 중·하위권보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Hong 등¹⁷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듯이 경제 상태가 높을수록 안전의식 실천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점수는 아버지 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중학교 졸업 보다 높아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응급처치 지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응급처치에 관련된 교육이 Kwon과 Chong¹¹의 연구, Hong 등¹⁷의 연구와 같이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응급처치 지식에 대한 정보출처로는 TV가 61.8%와 72%로 가장 높았고, 기타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19나 의료기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응급처치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TV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이 필요하겠다.

응급처치의 교육 필요시기는 초등학교에서 각각 38.8%, 4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 27.0%와 24.2%, 중학교 22.5%와 21.7%순이었다. 이는 초등교육에서부터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교, 직장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이 상대적으로 늦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법은 보건계열 여대생의 경우,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이 2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흔히 발생하는 응급질환 19.5%, 골절·탈구·염좌 14.1%의 순

으로 나타났고,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응급질환이 23.0%,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22.2%, 인체조직과 상처치치법 12.9%의 순이었다. 다른 선행연구는, 스키리조트 근무자를 대상으로 Kim과 Lee¹⁸의 연구에서 심폐소생술(10.2%), 응급환자 상태 확인(9.8%), 지혈법(9.5%)등의 교육을 선호하였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Seok¹⁹의 연구에서는 외상(15.6%), 출혈(14.6%) 및 심폐소생술(12.8%)교육을 선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여대생 교육선호도와 차이가 있으며, 여대생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질환과 위급한 상황에서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지역의 여대생을 대표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V.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해 볼 때, 광주지역의 여대생들은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실제 안전의식 실천과 응급처치 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의식 실천점수가 낮아 이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시기는 초등교육에서부터 필요하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령기의 교육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보건의료인의 배치 및 활용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Moon TY.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articipants in life-time sports for the first aid. J Korea Sport Research, 2004;15(6):345-355.
2. Cho KH, Oh DJ.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first aid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orea Sport Research, 2006;17(6):671-680.
3. Koo HJ.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and teacher's recognition on the school safety accident.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5.
4. Park SE, Chung YK, Park EJ. School safety accident and the status of school safety management. The

- Chung-Ang Journal of Nursing. 2001;5(2):79-88.
5. Kim DH. A study on teaching method according to school safety accidents aspects analysis-at preschoo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gyeonggi province. INHA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4.
 6. Hong JS, Choi CS. A study on the cognition of teacher and parents about school accid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6;3(1):103-121.
 7. Hyen SJ. The rightness of the reparations responsibility of the accident at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2.
 8. Lee JE, Yu HJ. Creating the new field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nd Its operating strategy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plan of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es.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2007;3(2):1-17.
 9. Choi JD, Moon TY. The relationship between pursuit by first-aid and CPR education programs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009;38(1):485-496.
 10. Bae DS. A study on improvement of living safety Crisis management for the human security in the university campus.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2011;5(2):35-63.
 11. Kwon HR, Chong JY. Actual survey of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first aid.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2003;7(1):81-94.
 12. Park JS, Wie CH. A Cohhrt study=Incidence of accidents in a women's university. Ewha Medical Journal, 1992;15(4):295-302.
 13. Kim TM, Go JM, Kim HS. Analysis on the effects of first aid and emergency rescue inervice program for the first respondents (drivers).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1998;2(2):58-72.
 14. Hong K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nowledge level of first aid. Kyungsan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0.
 15. Moon YS, Lim KS, Seo DW et al. Comparison of Asan medical center criteria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riteria among emergent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Emergency Medicine, 2004;15(2):64-74.
 16. Kim SH.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etyof Teachers regarding Safety Accidents at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1.
 17. Hong KY, Nam CH, Chai SB et al.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knowledge level on first aid.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1;18(3):77-88.
 18. Kim HH, Lee IS. First aid knowledge and education needs of ski resort workers.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2012;16(1):103-115.
 19. Seok HS. A survery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mergency management of child-care institutions and of the first-aid knowledge and education of child-care teachers. Seonggyunkwan of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7.